

끝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말씀, 기도가 되다

어느덧 우리는 40 일 여정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고, 어떤 날은 아무 감동 없이 말씀 앞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실한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19 편은 완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하루아침에 우리를 바꾸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의 방향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루의 말씀을 읽고,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짧게라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남은 여정도 함께 걸어갑시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8월 예배 위원

안 내	한규철	김정신			
기 도	이진교(2)	최상천(9)	조은영(16)	박래석(23)	한정임(30)

주일 예배 2026년 8월 2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찬양과 경배 / 다같이

기도 / 이진교

성경 봉독 / 창세기 3:8-13, 21 / Luke 9:57-62

말씀 선포 / 네가 어디 있느냐 / Same Life, Different Kingdom

성찬식 /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찬송가 305(신) 405(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이며, 회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응답입니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3.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무뎠어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새로운 결심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8 월 3 일
Day 21 (월)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의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81-84)

<개역개정>

81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 나의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나이다

83 내가 연기 속의 가족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84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새번역>

81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82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83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족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84 주님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묵상

지속한 불경기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 영혼이 연기 속에 방치되어 시커멓게 그을리고 쪼그라든 '가족부대'처럼 메말라 버립니다. "주님, 언제까지립니까?"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지요. 소망조차 고갈되어 피곤할 때, 시인은 억지로 힘을 내는 대신 '눈을 들어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때입니다.

기도의 초점

내 감정과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무기력할 때, 내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고정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쪼그라든 가족부대처럼 내 심령이 지치고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사오니, 이 시간 내 영혼을 오직 주의 약속에 고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내 메마른 영혼에 구원과 위로의 생수가 다시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026 년 표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 설교 요약

주님을 보는 사람들

히 12:14-17

은혜와 화평을 우리는

잘못 알았습니다.

화평은 거룩의

모습이며 진정한

성도의 표시입니다.

화평할 때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1.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릅니다. 화평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붙들고 서로를 믿음 안에 세워 가는 것이 참된 화평입니다.

2.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쓴 뿌리가 자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원망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또한 에서처럼 눈앞의 만족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세우는 삶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순간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더욱 귀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3. 거룩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장차 영광 가운데 주님을 뵈게 될 소망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거룩을 따라 걷는 성도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8 월 5 일
Day 23 (수)

인생을 하늘에 고정시키는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89-92)

<개역개정>

89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0 주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92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새번역>

89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90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의 기초도 주님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91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92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묵상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매일 요동치고 늘 불안정합니다. 믿었던 사람도 변하고
내 건강도 영원하지 않죠.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인생의 닳을
내려야 할까요? 시인은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고 고백합니다. 땅이
흔들릴 때는 하늘에 고정된 말씀의 주춧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고난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기도의 초점

환경의 변화와 세상의 흥흥한 소문에 마음을 빼앗겨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닳을 내리는 영적 고정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경제와 상황은 날마다 흔들리고 요동치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 생각과 시선을 이 불안한 땅의 형편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신실하심에 내 인생의 닳을 내리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기뻐하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8 월 6 일
Day 24 (목)

위기의 순간에 발동하는 말씀의 기억

오늘의 말씀 (시편 119:93-96)

<개역개정>

93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을 때문에 나를
살리심이니이다
94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95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96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새번역>

93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
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94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95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96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묵상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대기업도 언젠가는 한계를 만나고
무너집니다. 완벽해 보이는 모든 것에 다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한계가 없고 '심히 넓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얕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소유권을 선포하며
한계가 없는 말씀의 넓은 품으로 뛰어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기도의 초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한한 힘이나 인간의 얇박한 계산을 의지하지 않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며 안전함을 얻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세상의 돈도 권력도 결국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썩어질 끈을 잡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당당한
믿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내어맡기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나를 엿볼지라도 한계가
없으신 주의 말씀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8 월 7 일
Day 25 (금)

스승과 노인을 뛰어넘는 영적 분별력

오늘의 말씀 (시편 119:97-100)

<개역개정>

97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98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99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100 주의 법도들을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새번역>

97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98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99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100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묵상

지식은 학교의 '스승'에게 배울 수 있고, 인생의 경험은 나이 많은 '노인'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하죠. 하지만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고 우직하게 지켜내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박사나 노련한 자가 내놓는 정답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타이밍에 맞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기도의 초점

인간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치에 의존하는 미련함을 버리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원수와 세상 전문가를 뛰어넘는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세상의 정보와 인간의 경험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명철함과 분별력을 이 시간 내게 부어주옵소서! 온종일 주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릴 때, 내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게 하소서. 주말을 앞둔 내 영혼을 말씀의 지혜로 꽉 채워주소서 원수의 모든 꾀를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8 월 4 일
Day 22 (화)

나를 삼키려는 웅덩이 앞에서

오늘의 말씀 (시편 119:85-88)

<개역개정>

85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놓았나이다86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87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88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새번역>

85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86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87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
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88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묵상

세상은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을 어리석다 여기고, 때로는 모함으로 그의 삶을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려 합니다. 거의 매장될 것 같은 절망 앞에서는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맞서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웅덩이의 밑바닥에서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 나를 도우소서!" 세상이 판 웅덩이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은 훨씬 더 깊고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망의 깊이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

사람의 계략이나 억울한 모함으로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인간적인 수단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을 신뢰하며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악한 세상이 나를 해하려고 파놓은 웅덩이와 장애물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나를 멸하려 할지라도 나는 신실하신 주의 계명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세상의 모든 웅덩이를 넉넉히 뛰어넘는 반전의 승리를 주옵소서!